

■ 광주 노인일자리 박람회 가 보니...



'2007 광주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2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인들이 박람회장 입구에서 줄지어 서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알바 아닌 안정적 일자리 없나요?”

21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시·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마련한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다. 무더위에도 일자리를 찾아 나선 1만여명의 노인들로 행사장은 북새통을 이뤘다. 행사장 한켠에 마련된 이력서 복사 코너에는 5대의 대형 복사기가 질 새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노인들이 여러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보통 1인당 5~10장씩 이력서를 복사한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가했다는 김한구(75)씨가 한참 동안 발품을 팔다 지쳤는지 한숨만 푹푹 내쉬었다. 그는 “모집 부분이 경비·청소·주유원 등 기간제 근무가 대부분인데다 70세 이상 노인들을 뽑는 회사가 드물어 이력서를 수십 장씩

구직노인 1만여명 몰려 '북새통' 대부분이 경비 등 기간제 '불만'

출해도 일자리 얻기가 힘들다"며 하소연했다. 지난해 그는 '광고물 수거' 일자리를 겨우 얻었지만, 7개월 일한 뒤 다시 쉬어야 했다. 김관돈(78)씨는 3년째 일자리를 찾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구직의 문턱에서 좌절했다. 그는 “상당을 받으려 했지만 구인회사 관계자들을 만날 수 없어 자원봉사자에게 이력서만 주고 왔다”며 “독학으로 영어실력을 쌓는 등

나름대로 취업조건을 갖췄지만 회사들은 서류만 보고 젊은 사람만 선 발한다”고 아쉬워했다. 이날 직원을 구하겠다고 박람회장에 나선 회사는 84곳, 일자리는 총 1천923개. 대부분 월 급여가 20만~120만원에 불과한데다 4대 보험 중 노인들이 가입 가능한 산재와 건강보험조차 보장되지 않은 열악한 조건이었지만, 오후 5시 현재 6인회사 관계자들을 만날 수 없어 자원봉사자에게 이력서만 주고 왔다”며 “독학으로 영어실력을 쌓는 등

지원해 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비교적 급여가 높고 보험 등이 보장되는 제조·생산직에도 1천749명(6.1대 1)이 몰렸다. 35년 동안 직장생활 후 퇴직한 김동강(63)씨는 “돈보다 내 일자리를 갖고 싶어 박람회장을 찾았지만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실망했다”며 “몇 개월 일하고 떠나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아니라 보수가 적어도 보람있는 일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141만5천953명 가운데 10만5천802명으로 7.5%를 기록, 고령화사회(65세 이상 7% 이상)로 처음 진입한 지난해보다 6천414명(0.4%)이 증가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사찰 '연말정산 가짜 영수증' 기아차 직원 등 2,100명 조사

사찰의 기부금 허위 영수증 발급 사건에 기아자동차 등 광주지역 대기업 직원들 수 천명이 연루돼 무더기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류희상)는 21일 이미 구속된 S사찰 김모(61) 주지 등 4개 사찰 4명의 주지에게 1인당 10여만원의 주고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의 기부 금액을 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은 기아자동차 근로자 2천100여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직원들에게 기부금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도록 해준 일부 간

부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찰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기아차 근로자들은 개인당 10만원씩을 주고 작업장별로 50~80명씩 단체로 300만~400만원씩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으며, 이를 통해 40만~50만원씩 세금 환급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일 기아차 광주공장으로부터 직원들의 2005년~2006년 연말정산 서류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기아차 외에 다른 업체 직원들도 조직적으로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은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지검 류희상 특수부

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일부 근로자들이 세무서에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고 환급 공제액을 다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환급 공제액을 다시 납부했다고 죄를 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드러나면 조세범처벌법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조세범처벌법(9조)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 및 환급 공제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현배기자 cki@

해남서 중학생 집단 식중독

63명 복통...36명 치료

순천에 이어 해남에서도 중학생들이 집단식중독에 걸려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1일 전남도교육청과 해남군 보건소에 따르면 해남 S중 학생 63명이 지난 17~18일 설사와 복통을 호소해 이중 증세가 심한 36명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이다. 학교 측은 설사와 복통 증세를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교내 지하수의 음용을 금하는 한편, 급식도 중단했다. 해남군 보건소는 학생들이 지난 15일 급식과 지하수를 먹고 탈이 난 것으로 보고 음식물 11건, 음용수 6건 등 모두 86건의 검사 대상을 채취해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이 학교는 외부위탁이 아닌, 직영 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소 측은 학교 및 조리실 종사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학생들은 지난 15일 점심으로 현미찰밥·어묵 김치찌개·오징어숙회·잡채·유부감자채볶음·부추 생채·과일샐러드 등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군 보건소 관계자는 “학생들의 증세가 경미하지만 전 학년에 걸쳐 잠열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순천M고 학생 54명, 지난달 28일 순천 M 중학생 14명 등을 들어 도내 7곳의 초·중·고에서 160여 명의 학생들이 집단 설사 증세로 치료를 받았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여중생 성매매 연루 '괴담'

일부 인사들이 '가출 여중생 감금·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광주·전남지역 의약계와 학계에서 확인되지 않는 관련자 리스트가 괴소문 형식으로 떠돌면서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광주시 서구의 한 개원의는 “잠깐 휴가를 가거나 병원 문을 며칠만 닫아도 이번 사건과 연루돼 도피 또는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 정도”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의 연루된 인사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A 대학의 한 교수는 “B단과대학의 C교수가 연루됐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며 “11월 명단 공개에 앞서 (관련자가) 사퇴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광주 모 경찰서의 한 간부직원

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에 부탁해 명단을 확보할 수 없느냐는 지인의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괜한 오해를 살까봐 거절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중인 전북지방경찰청은 21일 현재 전체 성매수 혐의자 800여명 중 130명의 남성을 소환·조사했으며 이들 가운데 성매수 횟수가 많은 100여 명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800여 명에 달하는 성매수 남성들이 갖가지 핑계를 대며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지만, 관련자 모두를 끝까지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11월 명단 공개 앞두고 의약계·학계 소문 무성 오해 살까 휴가도 못가

장흥부군수 부인 교통사고 숨져

21일 오후 2시20분께 순천시 송광면 이음리 B식당 앞 삼거리에서 장모(여·47)씨가 운전하던 '전남32다 91XX'호 소나타 승용차가 도로 옹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장씨가 크게 다쳐 화순 전남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함께 타고 있던 조모(여·50)씨 등 3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숨진 장씨는 이모 장흥 부군수의 부인이다. 경찰은 숨진 장씨가 조계산에서 이음리 방향으로 내려오던 중 사고지점에서 미처 핸들을 꺾지 못해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니원침 (7242) 김중득



Advertisement for KCC (Korea Construction Chemicals) products including DS건설(주), KCC창호, KCC시멘트, and KCC시공.

Advertisement for '동거녀' (Living Together Girl) magazine, featuring a photo of a woman and text about a 5-year relationship.

Large advertisement for Gallery RODEM furniture store, featuring various furniture items like beds, sofas, and dining tables, along with promotional text and contact information.